

“학사일정 정상운영에 만전”

서거석 교육감, 긴급회의의 주제… “교직원은 교육활동 전념” 당부

“도내 모든 학교에서의 학사일정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해제로 민주주의가 정상화됐다”며 “전북교육청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교육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교직원 여러분들은 일체의 동요없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청 및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이외의 행사 자체를 권고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7분 서 교육감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다음날 오전 6시 53분 부교육감에게 계엄령 해제 상황을 보고한 데 이어 교육감 주제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해제로 민주주의가 정상화됐다”며 “전북교육청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교육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설명회 개최

맞춤형 프로그램 초1→2학년까지 확대

늘봄지원실장 100명 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4일 전주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에서 ‘2025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늘봄지원실장 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오전에는 교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방향 및 전달 운영 체계, 늘봄학교 운영 질라잡이 개요 및 늘봄학교 운영의 실제 등을 안내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번 설명회 선발전 늘봄지원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체계 및 관련 행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2025년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

봄 서비스도 늘봄과정으로 통합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교육, 돌봄)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아침늘봄, 오후늘봄, 저녁늘봄으로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는 학교안과 학교밖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전북형 늘봄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최대 오후 6시까지, 학교밖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초2 학생까지 확대해 매일 2차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희망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과말·신도심 지역의 학교안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밖 늘봄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협동조합, 교육농장, 지역아동센터 등 217개 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단위학교에 늘봄지원실을 구축하고 늘봄 전달 운영체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100명을 내년 3월 1일자 배치하고, 늘봄학교 업무 총괄 및 늘봄지원실 관리, 민원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늘봄학교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다”며 “늘봄학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 경력 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ESG 경영 실천 선포식

탄소중립 실천·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이행 다짐

환경분야 POD 방식 도입 사회분야 점자명함 도입 등 실질적 세부 실천 과제 '주목'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전정희 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ESG 경영 실천 과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다.

클(Recycle)로 자원 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이어 사회(Social) 분야에서는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명함을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품 기부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가족 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1층 로비에 소소담 전시실 등을 개방해 시민들에게 열린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에서는 ESG경영위원회, ESG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재단 내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T) 구성 시 개방적 참여와 대상자 확대를 통해 포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실현한다. 재단은 이번 ESG 경영 실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기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전정희 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의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또한, 노후·불용 정보와 기기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에 기증하여 리사이

반추동물 메탄 저감 기술 기업에 기술이전

전북대, 특허기술 3건 트레바이오에… 탄소중립 기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은 특허기술 3건을 (주)트레바이오(대표 이종훈)에 기술이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엔 이전된 기술은 전북대학교 최낙진 교수 연구팀(동물자원과학과)이 개발한 것으로, 반추동물의 메탄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사료 첨가제에 관한 혁신적 기술이다.

반추동물인 소는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이러한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



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낙진 교수 연구팀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축산 현장에 적용이 가능

한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산업 구현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 (주)트레바이오는 2009년 설립된 가족 사료 원료 및 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최근 축산인노베이션 연구소를 개소하며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전북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결합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축산 산업 발전과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중학교

교장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 전주 왕의지빌딩에서 도내 중학교 교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중학교 관리자의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고등학교 연계 진로·학업 설계 지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중점사항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주요사항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의 변화를 안내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요구하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소개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교육과정 전환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연계 지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교원양성대학 4개교는 최근 호주 시드니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공동 교육실습과 한국어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노인건강문제 해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노인운동사협회 창립총회… 초대 협회장에 전주대 홍용 교수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 홍용 교수(대학원장)가 노인운동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됐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노인운동사협회는 노인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해 창립됐다. 특히 학생회원을 제외한 8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요양센터나 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는 대표 및 강사들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전체 도

민 중 노인인구 비율이 25%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이번 창립된 노인운동사협회가 전북 노인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노인운동사협회 초대 협회장인 홍용 교수는 “도내 노인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시행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시점에 노인운동사협회의 발족은 도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취창업처, 2024 취업경진대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취창업처는 4일 '2024 취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차 입사지원서 경진대회와 2차 모의면접 경진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입사지원서 경진대회에서는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체계적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능력을 배양하고, 참가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어 2차 모의면접 경진대회에서는 인사면접, 토론 면접 등 실질 면접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이경훈(물리치료학과 3년) 학생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경훈 학생은 “경진대회를 통해 입사지원서도 작성해보



고, 모의면접도 보면서 대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내가 가진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심훈 취창업처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향후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경훈 학생은 “경진대회를 통해 입사지원서도 작성해보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2학기 기말고사 맞아 특별 간식이벤트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4일 2학기 기말고사를 맞아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간식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병훈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우병훈 총장은 아침 등교 시간에 직접 학생들에게 도넛과 따뜻한 음료 등을 건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우병훈 총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시험준비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